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自我)의 영원불변함을 깨달아야 한다네.
- ②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德)을 따라야 한다네.
- ③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여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네.
- ④ 무명(無明)을 추구하여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네.
- ⑤ 악한 본성을 교정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네.

2.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마음[心]은 곧 이(理)이다. 천하에 마음 밖의 일이 있고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벼를 사귀는 경우 벼에게서 믿음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다. 모두 마음에 있을 뿐이다.
(나)	

- ① 마음의 본체를 유지하여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② 앎[知]과 실천[行]의 선후를 나누어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 ③ 모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지극히 해야 합니다.
- ④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良知)를 발휘해야 합니다.
- ⑤ 마음 밖의 이치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나 선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것은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덕은 곧 참된 앎이므로 사람들은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어야 한다.

< 보 기 >

- ㄱ. 참된 앎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 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인가?
- ㄷ. 올바르게 못한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 ㄹ. 감각적 경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려는 타자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며 배려 행위의 근원에는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가 있습니다. 자연적 배려가 어머니의 모성애와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온 배려라면, 윤리적 배려는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 배려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 ① 배려의 대상을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로 한정해야 한다.
- ② 도덕적 실천은 인간관계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도덕 판단은 감정을 배제한 공정성만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배려의 행위는 구체적 상황과 무관한 개인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 ⑤ 윤리적 배려와 달리 자연적 배려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한다.

5. 현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실존은 한계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한계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괴로워하거나, 우연히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처럼 극복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며 이를 통해 초월자에 대한 경험에 이를 수 있다.  
 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이후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 ① 갑: 한계 상황은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② 갑: 이성의 합리성을 이용하여 한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 ③ 을: 개별성에서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을 찾아야 한다.
- ④ 을: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해야 한다.
- ⑤ 갑, 을: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

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보다 지속적으로 영혼을 괴롭히는 잘못된 의견들을 물리치는 냉철한 관조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 쾌락이 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동요로부터의 해방[ataraxia]을 의미한다.  
 을: 감각적 욕망을 경멸하며 현상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사물들의 이성적 본성[logos]을 관조하는 것이 인간다운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다운 활동을 할 때 만족을 느낀다.

- ① 갑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회피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적극적으로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만 행복이 얻어진다고 본다.
- ③ 을은 세계의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이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집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배우자를 공경하고 자식과 며느리를 사랑하며, 하인을 내 자식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이것이 한울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을: 친차만별 형형색색으로 나열되어 있는 우주 만물의 최초의 근원은 하나이며, 그 하나가 곧 일원상(一圓相)의 진리요, 따라서 우주 만물은 일원상의 진리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 보 기 >

- ㄱ. 갑은 현세보다 내세에서의 지상 낙원의 실현을 지향한다.
- ㄴ. 을은 정신과 육체, 현실과 이상의 조화와 발전을 강조한다.
- ㄷ. 갑, 을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 ㄹ. 갑, 을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수행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주장으로 옳은 것은?

올바른 다스림이란 백성을 형벌이 아닌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바르게 될 것입니다.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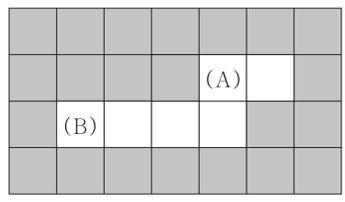
올바른 다스림이란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恒産]을 마련해 주어 선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恒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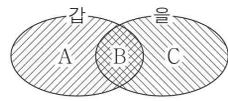
- ① 통치자는 백성의 삶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인의(仁義)를 해치는 통치자는 교체해야 한다.
- ③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통치[德治]를 해야 한다.
- ④ 법(法)과 술(術)으로써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⑤ 친소(親疏)의 차별이 없는 사랑[兼愛]을 실현해야 한다.

9.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진 어떤 시민이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순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복합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p>[가로 열쇠]                  (A):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지위에 따른 역할을 다한다는 공자의 사상                  (B): 자유 경쟁과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 및 이념</p> <p>[세로 열쇠]                  (A): …… 개념</p>

- ① 가상적 상황을 통해서 단일한 분배의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 ② 사회의 각 영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 ③ 다양한 분배 원리들이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 ④ 사회의 각 영역이 가진 자율성을 보장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⑤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서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우리의 행동과 말,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이다. 공리의 원리는 고통과 쾌락에 대한 우리의 종속을 인식시켜 주며 이성과 법률의 손을 빌려 행복한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p> <p>을: 우리의 의지는 준칙을 통해 보편적 법칙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존경심의 대상이 된다. 오직 법칙에 대한 존경심만이 행위에 도덕적인 가치를 줄 수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20px;"> <p>&lt;법 레&gt;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② A: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 ③ B: 동정심이나 자기애의 감정이 도덕성의 기반이 된다.
- ④ B: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 ⑤ C: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이다.

11.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두 개의 정(情)이 아니다. 정은 모두 칠정이라 말하고 그 칠정 중에서 선한 것만을 선택해서 사단이라 말한다.
(나)	

< 보 기 >

- ㄱ. A: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는가?
- ㄴ. A: 사단은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것인가?
- ㄷ. B: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인가?
- ㄹ. B: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좋은[善]의 이데아는 모든 옳고 훌륭한 것의 원인이며 이데아의 세계에서 최고의 이데아입니다.</p>	<p>아닙니다. 현실 세계를 벗어난 좋은의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좋은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입니다.</p>
<p>갑</p>	<p>을</p>

< 보 기 >

- ㄱ. 갑은 이성을 통해서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을은 덕을 갖추려면 좋은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도덕적 선이 현실에서만 존재한다고 본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가), (나) 이상 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대동 사회에서는 대도(大道)가 행해지고 천하에 공의(公義)가 구현된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가 관직을 맡으며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홀로된 자와 병든 자 모두 부양받는다.

(나) 공산 사회는 개인이 분업에 예측되는 상태로부터 해방되고 노동에 대한 착취가 중지될 때 시작된다. 그 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극복되는 사회를 볼 수 있게 된다.

- ① (가)는 도덕성이 구현되고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이다.
- ② (가)는 구성원 각자가 본분에 충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 ③ (나)는 모든 생산 수단이 공유되고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이다.
- ④ (나)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업적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 ⑤ (가), (나)는 모두 재화의 고른 분배를 지향하는 사회이다.

14.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이 <사례> 속 A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평가할 때 제시할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도덕적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며 고통이나 쾌락에 의존한다. 이성엔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양심이나 도덕감과 같은 활동적 원리의 원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사 례>

하룻길에 A는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고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가까운 경찰서로 아이를 데려갔다. 경찰의 도움으로 엄마를 찾은 아이를 보며 A와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 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②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여 실천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③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④ 이웃을 도와야 하는 의무감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⑤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15.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배워서 행할 수 없는데도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배워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작위[偽]라고 하는데, 예의(禮義)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성인(聖人)의 작위에서 생겨난 것이다. ... (중략) ... 무릇 사람들은 가난하면 부유해지려고 하고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데, 이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밖에서 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 \_\_\_\_\_

- ① 사람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 ② 사람이 선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 ③ 사람이 예의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 ④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白紙)와 같다.
- ⑤ 사람의 선천적인 도덕성은 항상 사욕(私慾)에 가려져 있다.

16.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이성(理性)은 믿음(信仰)에 대한 보상이며, 믿음은 앎보다 선행한다. 신을 믿음으로써 천상(天上)의 국가가 형성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지상(地上)의 국가가 형성된다.  
 을: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는 증명된다. 이성으로 신의 본질을 볼 수 없다면, 인간은 신이 아닌 다른 목적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신앙과 이성(理性)에 위배되는 의견이다.

< 보기 >

ㄱ. 갑은 신을 종교적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본다.  
 ㄴ. 을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ㄷ. 갑, 을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본다.  
 ㄹ. 갑, 을은 신이 창조한 인간을 자유 의지가 없는 존재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인은 관행과 전통 같은 사회적인 현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삶의 형식에 뿌리를 두고 각각의 목적을 지닌 일련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나)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신의 육체나 정신을 보위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그 자신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꾸려 나가는 것이 자유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이다.

- ①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삶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목표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③ 개인의 권리 행사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④ 개인의 자율적 삶과 공동체의 관계적 삶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⑤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부정하고 있다.

18.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극한 덕(德)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새나 짐승과 함께 어울려 살고, 만물과 무리지어 다 같이 산다. 그러니 어찌 군자와 소인이 있음을 알겠는가? 다 같이 무지(無知)하여 타고난 성질을 떠나지 않는다. 다 같이 욕망이 없으니 이것을 소박(素樸)함이라 말한다. 소박함으로써 본성이 보전되는 것이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②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타고난 본성을 억제해야 한다.  
 ③ 엄격한 사회 제도를 만들어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④ 예악(禮樂)을 중심으로 문명의 발달을 추구해야 한다.  
 ⑤ 인의(仁義)를 숭상하는 성인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19. 다음 가장 편지를 쓴 조선 시대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선생님께  
 지난번 선생님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의예지(仁義禮智)에 관해 저는 선생님(先生)과 다르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고로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실천 이후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사랑한 뒤에 인(仁)이라 하며,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義)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손님과 주인이 절하며 읍한 뒤에 예(禮)라는 명칭이 성립하며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智)라는 명칭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찌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낱말이 주렁주렁하여 마치 사람의 마음속에 복숭아씨와 살구씨가 숨어있는 듯 하겠습니까?...(후략)...

- ① 도덕적 실천을 통해 악한 본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인간은 선천적으로 인의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③ 악을 미워하는 인간의 기호(嗜好)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④ 사덕(四德)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마음의 이치라고 본다.  
 ⑤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自主之權]이 있다고 본다.

2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나라의 바탕은 백성, 사직(社稷), 임금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며, 사직이 다음이고,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이다. 따라서 백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나)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가 실현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다. 신의 가호 아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학생 답안  
 (가)는 ㉠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며,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인격적 완성을 중시한다. 이에 비해 (나)는 ㉢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보며,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중시한다. 한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통치자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